

기획



명품홀 품은 '거대한 유리상자' 침묵의 도심을 예술로 깨우다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미국편
(19) 김벨예술센터

필라델피아=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쪽 끝에 위치한 필라델피아는 국내 영화팬들에겐 친근한 도시다. 빈민가의 복서 록기 발보아(실베스타 스텔렌)의 인간승리를 그린 '록키'(1977년 제작)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스크린에 등장한 슬럼프의 모습은 '영화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필라델피아는 범죄와 마약의 온상이라는 불명예가 따라 다녔다.

그중에서도 구 도심에 위치한 브로드 스트리트는 악명높은 거리였다. 필라델피아 시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21km 구간은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야간에는 인적을 찾아 보기 힘들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아카데미 오브 뮤직'(1857년 개관)과 같은 유명 공연장에도 관객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관람을 끝낸 관객들은 택시나 지하철도를 타고 서둘러 빠져나갔다. 밤이 되면 유령의 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하지만 1993년 에드워드 렌델 시장이 부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죽어가는 도시를 되살릴 묘안을 찾던 그는 브로드 스트리트를 '예술의 거리'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가로경관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렌델 시장이 두번째로 주켜 든 카드는 '예술 특구'였다. 점포와 대형빌딩자리에 예술공간을 불러들이는 도심재개발사업이다. 오랜 세월 시민들의 지식창고였던 리지웨이 도서관은 필라델피아 예술학교로, 소방서는 관화 전문 갤러리 '브랜디워 워크숍'으로, 사우스 필라델피아 국립은행 건물은 소극장 '필라델피아 아트뱅크'(230석)로 화려한 변신을 했다. 펜실베이니아 발레단은 상가 빌딩을 개조해 전용 연습실을 마련했고 2006년엔 160가구의 아파트와 350석짜리 공연장을 결합한 '실포니 센터'가 들어섰다.

시청 북쪽엔 영화 '록키'를 촬영했던 복싱경기장 '레전더리 블루 호라이즌', 1만200석짜리 규모의 실내 경기장 '리어나쿠르스 센터', 템플대

음대의 350석 규모의 음악당 '로크홀', 흑인 전문극단 '뉴 프리덤 시어터', 남쪽엔 뮤지컬 극장 '프린스 뮤직 시어터'(350석), 뮤지컬·발레 극장 '메리엄 시어터'(1790석)가 속속 자리잡았다. 음악 공연장 20개, 미술관 7개, 연극 무용 공연장 20개, 상주 문화예술단체만도 4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워니워니해도 브로드 스트리트의 '센터'에 자리한 김벨예술센터는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의 꽃이었다. 렌델 시장은 '필라(필라델피아 예칭)의 연인'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새 전용홀 건립을 제안했다. 지난 1900년에 창단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뉴욕 필 하모닉, 보스턴 필하모닉과 함께 미국의 3대 교향악단으로 꼽히는 필라델피아의 아이콘. 그는 100여 년 동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전용홀로 사용해온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 노후돼 예술의 거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여

로부터 3000만 달러를 유치하는 등 기금마련에 성공했다. 필라델피아시는 아트센터 펀드레이징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김벨의 이름을 따서 '김벨센터'로 명명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2001년 12월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관한 김벨센터는 단숨에 필라의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건축가 라파엘 비놀리는 '두개의 보석(전용홀)을 담은 거대한 유리상자'라는 컨셉으로 브로드 스트리트의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스케일로 설계했다. 높이 45.7m의 거대한 반원형 유리외벽으로 설계된 김벨센터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주무대로 사용되는 베리존 홀(2543석)과 연극·무용·실내악·팝콘서트,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홀 펠릭스 시어터(650석), 레스토랑, 카페, 매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섰다.

김벨센터가 필라델피아의 문화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지역발전형 프로그램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전용홀 연중 관객 발길 줄이어 기획공연·교육 프로그램 다채... 문화의 전당 자리매김

기에는 아카데미 오브 뮤직의 구조적인 음향문제도 한몫했다.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 오페라 전용홀인 이탈리아의 라 스칼라 극장을 모델로 지어져 잔향시간(1.3초) 등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부터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등 역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들이 공연장의 음향시설을 이유로 여러 차례 개보수를 요구했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번번이 었던 일이 됐다.

렌델 시장의 아트센터 건립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소요예산(2억5000만 달러) 조성을 놓고 비난했지만 그는 영화제작사 시디니 김벨

공도 빼놓을 수 없다. 김벨센터는 개관과 동시에 관객들의 눈높이와 문화지수를 끌어 올리는 기획공연과 축제,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11~19세의 청소년들을 겨냥한 '창의음악 프로그램', 일선학교의 음악수업에 예술가들을 강사로 파견하는 '에듀케이터 오픈 하우스' 등은 김벨센터의 대표콘텐츠들이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한차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특정국가의 아티스트와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음악주간행사인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에서 원정관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jhpark@kwangju.co.kr



시락해가던 필라델피아의 브로드 스트리트를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시킨 김벨예술센터 전경.

지난 4월 김벨예술센터에서 열린 프랑스 음악주간행사에는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관객들이 몰리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 프랑스 음악주간 상징물로 공연장 로비에 세워진 에펠탑 모형이 인상적이다. /필라델피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프레슨의
골프를 바꾸다

김현의 마음골프
골프는 마음의 수련으로 향상된다!

오태훈의 개그골프
이보다 더 재미있는 골프 레슨은 없다!

전욱휴의 스마트골프
본체가 함께하는 맨몸 골프 레슨의 진수!

제이슨 강의 리얼레슨
세심한 진정성으로 승부한다!

에디조의 베이직골프
체계적인 정석골프 레슨을 지향한다!

모든룸에
고순도 산소 공급기
공기청정기 설치

Giant Golfzon

Golfzon의 새로운 레슨 프로그램
'마티아'는 자이언트 골프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21-0071
www.ggolfzon.com

전욱휴 프로 단독레슨

11월 30일(수) 전욱휴 프로
자이언트 골프존 단독 레슨 예정!!
상세일정은 회원들에게 추후 통보

5분 레슨이 충분 하시던가요?
이제 자이언트 골프존에서 국내 유명 프로들의 전문 레슨을
한시간 동안 집중과의 받으세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심혈관 개인맞춤 레슨

보고 + 듣고 + 따라하기

보고, 듣고, 따라하는 신개념 골프레슨 - 골프존 마티아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을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폐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범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